

탄산칼륨, 영상유리 위축 “타격”

미국, 제조기업 절반이 생산중단 ...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세

미국 의 4개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메이커 가운데 2사가 탄산칼륨 사업에서 철수해 시장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주요 전방산업인 TV와 브라운관용 유리산업이 위축되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요처들이 늘고 있으며 탄산칼륨 전체 생산능력 감소로 가동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Armand Products는 시장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rmand Products는 Occidental Chemical과 Church & Dwight의 50대50 합작기업이다.

탄산칼륨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으로, 천연가스 가격과 운송비용이 급상승해 생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2003년 7월 파운드당 2센트 인상됐다.

미국 탄산칼륨 수요는 1999년 정점에 달한 이후 TV 및 브라운관용 유리 시장의 쇠퇴로 꾸준히 하락했다.

그러나 영상기기용 유리 외에 특화된 용도에 대한 탄산칼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개 생산기업이 철수해 5만톤의 생산능력이 줄어 전체 가동률이 훨씬 높아졌다. 다만, 전반적인 수요는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에너지 비용 및 미국의 영상유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탄산칼륨 생산기업들은 2002-2003년에 수요 강보합세였으며 포장제품이나 소량 비포장제품 시장은 상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TV·브라운관용 유리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점차 아시아로 옮겨갈 것으로 보여 수요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탄산칼륨 시장은 영상유리 제조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데 수출시장에서는 중국의 TV 생산이 급증한 반면 전력상황이 좋지 않아 탄산칼륨 수요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탄산칼륨 생산기업은 모두 4곳으로 Armand Products가 생산능력 10만8000톤으로 선두이며, Vulcan Chemicals과 Ashta Chemicals, 그리고 Ceder Chemical의 Vicksburg Chemical 부문이 각각 2만5000톤 안팎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eder Chemical은 파산상태에 있으며, Ceder의 자회사 Vicksburg는 2002년 미시시피주 Vicksburg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

Ashta의 생산설비도 가동을 중지해 대기상태에 있다. Ashta는 공장이 한시적으로 가동을 멈춘 것일 뿐 영구적 폐쇄는 아니며 6-7월에는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기기용 유리 제조기업들도 역시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

Thomson Multi Media는 오하이오주 Circleville 플랜트를 6-7월에 폐쇄할 계획이어서, 6000-8000톤의 탄산칼륨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2003년에는 Corning과 Asahi Glass America의 합작기업인 Corning Asahi Video Products가 급격한 수요감소로 사업을 중단했다.

Asahi는 펜실베이니아 State College 플랜트를 폐쇄하고 일부 생산설비를 중국 Henan의 Henan Anyang CPT Glass bulb Group과 Xinxi Electronic Glass에 매각했다.

<화학저널 2004/07/16>